

여성 경제활동 확대 위해 보육정책 공공성 강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의원 류지영,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주제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81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과 국회의원 류지영은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81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로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실천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이에 이번 포럼은 보육비용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의 측면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 최금숙 원장은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행사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 이번 포럼에서는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육비용과 공공지출"을 주제로,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직장보육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유희정 선임연구위원은 보육재정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보육예산 지원 추이와 보육 비용의 구조 및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인건비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이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구조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이택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 주제 발표 후에는 이남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고성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미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센터장, 이미정 한국보육 학회 회장, 홍숭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에 참여한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81차 여성정책포럼]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일시·장소** : 2013년 7월 1일(화) 13:30~16: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의원 류지영

□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13:30~13:40	개 회 식	사 회: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인 사 말: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13:40~14:40	발 표	사 회: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1. 보육비용과 공공지출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직장보육 지원방안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40~15:30	지정토론	- 이남주(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고성희(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김미정(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센터장)
		- 이미정(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30~16:00	종합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